

충주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Chungju
Public Art
Project



충주중원문화재단
Chungju Jungwon Cultural Foundation

충주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Chungju
Public Art
Project

(사)한국미술협회 충주지부
예술하다
스튜디오 굿
(사)민족미술인협회 충주지회

인사말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이사장 백인욱

충주의 정체성을 담은 충주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재)충주중원문화재단은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우리 충주시민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2020년 8월말 작가팀 공모에서부터 시작된 충주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예술가의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일상적 문화향유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달려온 6개월여의 시간, 그 작업기간 동안 37명의 예술인들은 창작의 고통과 함께 기쁨 또한 맛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에너지가 순환하여 시민들에게 위로와 힐링으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일상의 삶이 소중해지는 지금 이 시대에 문화와 예술의 몫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히 느껴집니다.

충주시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이렇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작품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37명의 작가들을 비롯하여 주최측인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특히 이번 사업과 관련한 충주시 여러 부서의 담당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충주중원문화재단은 늘 충주시민의 삶 속에 녹아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충주시 문화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5일

축사



충주시장 조길형

안녕하십니까. 충주시장 조길형입니다.

예술인들에게 작업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기획된 '충주시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성과물인 7작품의 완성을 22만 충주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또한,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총감독님을 포함한 37분의 작가님들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주민의 참여·소통, 지역자원 및 지역스토리 반영 등 일상을 기반으로 새로운 예술작업을 시도함으로써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제막식이 열린 호암지 생태전시관을 비롯하여 충주음악창작소, 지현동행정복지센터, 종댕이길 등 총 4곳에 설치된 7점의 작품이 지역공간의 품격을 제고하고 주민과 예술인 간 소통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으로 충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25일

충주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Chungju Public Art Project



충주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위치도

- 1 충주시 사직로 140(음악창작소)
작품 : 하모니
- 2 충주시 지현천변 1길 41(행정복지센터 앞)
작품 : 봄봄봄
- 3 충주시 상아배이길 84(호암지 생태전시관 앞)
작품 : 등대꽃
- 4 충주시 종민동 산84-1(종맹이길 안내소)
작품 : ㅋㅋㅋㅎㅎㅎ / 나비의 유명 / 향기를 품다 / 휴식을 위하여

Contents

목차

충주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추진현황	006
1. 사업개요	006
2. 추진체계	007
3. 공모사업 세부내용	009
4. 사업진행현황	009
5. 사업내용	010
6. 함께한 사람들	028
하모니	032
(사)한국미술협회 충주지부	
봄봄봄	056
예술하다	
등대꽃	080
스튜디오 굳	
조형예술과 함께하는 종댕이길	104
(사)민족미술인협회 충주지회	

충주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추진현황

1. 사업개요

- 사업명 : 충주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 추진체계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충주시
 주관 : (재)충주중원문화재단
- 사업기간 : 2020. 8. ~ 2021. 2.
- 사업지 : 충주관내 4곳(문화동 충주음악창작소, 지현동 행정복지센터, 호암생태공원, 종댕이길)
- 사업예산 : 415,000천원(국비 332,000천원, 지방비 83,000천원)
- 참여작가 : 37명(총괄감독1명, 참여작가36명)
- 작품수 : 7점
- 사업구성 : 공모사업

연번	위치 / 주소	주요내용
1	충주음악창작소 (충주시 사직로 140)	음악이라는 요소가 특성화된 장소에 의미를 복돋는 조형작품 설치 - 프로젝트명 : 하모니 - 작품수 1점
2	지현동 행정복지센터 (충주시 지현천변1길 41)	봄봄봄 프로젝트, 충주 '사과'의 진원지 지현동의 사과 스토리텔링 작품 설치 - 프로젝트명 : 봄봄봄 프로젝트 - 작품수 1점
3	호암지 생태전시관 앞 (충주시 상아배이길 84)	자연 속 휴식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한 조명 기능을 더해 유용한 예술조형물 - 프로젝트명 : 빛으로 전하는 공공미술 '등대꽃' - 작품수 1점
4	충주호 종댕이길 안내소 (충주시 종민동 산84-1)	충주의 대표 관광지인 종댕이길의 시작점인 주차장 부지를 단순한 주차역할을 넘어 예술 향유와 오락, 휴식공간으로 재탄생 시키는 프로젝트 - 프로젝트명 : 조형예술과 함께하는 종댕이길 - 작품수 4점

2. 추진체계

- **조직구성**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충주시
 주관 : 충주중원문화재단
 시행 : (사)한국미술협회 충주지부, 예술하다, 스튜디오 곤, (사)민족미술인협회 충주지회

- **주체 및 역할**

위치 / 주소		주요내용
지자체	충주시	- 사업비 교부 - 대상지 제공, 지원 - 작품 사후관리 추진 및 지원 - 사업 홍보
주관처	(재)충주중원문화재단	- 보조금 집행 - 작가팀 선정 및 교육, 지원, 관리 - 전문 자문단 구성, 컨설팅 지원 - 현장점검 (중간이행점검, 최종점검) - 아카이브 구축 지원 - 예산관리, 사업 홍보
총괄감독	장백순	- 실행계획 수립 컨설팅 및 지원 - 현장점검 (중간이행점검, 최종점검) - 아카이브 구축지원 - 사업 홍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팀 4팀	(사)한국미술협회 충주지부 예술하다 스튜디오 곤 (사)민족미술인협회 충주지회	- 실행계획 수립 - 추진협의체 구성 - 프로젝트 진행 - 이행보고, 진행보고, 결과보고(정산, 실적) - 아카이브 구축 (도록, 백서, 영상물등)

- **충주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심사위원**

직 위	소 속	성 명	분 야
심사위원장	전, 마을미술프로젝트 총괄감독	김해곤	예술인
심사위원	전, 충북미술협회 회장	강호생	예술인
심사위원	전, 충북민족예술인총연합회 이사장	이동원	예술인
심사위원	한서대학교	박만철	예술인
심사위원	전,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 추진위원장	이을배	예술인

• 충주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자문위원

직 위	소 속	성 명	분 야
위원	충북예술인총연합회	강병완	예술인
위원	충주시청 도시재생과	김태환	공공디자인
위원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박원규	문화예술 행정
위원	한서대학교	박만철	공공미술



〈사업공모 심사 2020. 8. 28〉

• 실행 (공모당선 작가팀)

작가팀명	대표자명	구성원	인원수
(사)한국미술협회 충주지부	이종성	김현숙, 김창곤, 김경애, 강덕자 임병한, 권지영, 변기영, 어머니숙	9명
예술하다	권연정	정봉기, 윤은옥, 장명남, 김동교 전정환, 장경원, 전상언, 전성해	9명
스튜디오 군	김광진	복기형, 유영복, 손병돈, 김미화 이경선, 권덕영, 박현숙, 이수영	9명
(사)민족미술인협회 충주지회	김유미	김영범, 임헌명, 신선희, 이호훈 원종근, 권길순, 김진숙, 최미량	9명

3. 공모사업 세부내용

- 사업명 : 충주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 공공미술 작품 설치 사업
- 사업목적 : - 충주지역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더불어 주민들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공공조형물 설치 프로젝트를 추진 하고자 함
 - 다수 미술가가 합동하는 작업을 시도하여 충주지역 예술 생태계의 발전 추진
 - 예술인들이 직접지역의 자원과 스토리를 활용하여 조형물을 디자인하여 지역 공간의 품격을 제고 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20. 8. ~ 2021. 2.

4. 사업진행현황

- 사업 참여 · 협력기관

기관명	내용(역할)	비고
충주시(푸른도시과)	빛으로 전하는 공공예술, 조형예술과 함께하는 종댕이길 작품 설치장소 관리부서	
충주시(환경수자원과)	빛으로 전하는 공공예술 작품 설치장소 관리부서	
지현동 행정복지센터	봄봄봄 프로젝트 작품 설치장소 관리부서	

- 사업 추진일정

연월	구분	추진내용	
2020	9	실행계획단계	총괄감독 및 자문단 의견 조정, 관련부서간 협의 및 실행계획서 제출, 행정인력 및 참여작가 교육
2020	10	실행계획서 작성	자문위원회 자문 수용 및 실행계획 보완 작성
2020	11	협약 및 교부신청	주관처와 협약, 교부신청 진행, 자재 발주 및 기초타설, 제작
2020	12	작품제작	팀별, 작가별 조형제작 진행
2021	1~2	작품 설치완료	조형작품 설치 완료, 제막식
2021	2	사업완료	정산 및 사업보고 완료

5. 사업내용

• 프로젝트 1 - 하모니

작가팀명	(사)한국미술협회 충주지부	대표자명	이종성
프로젝트명	하모니		
사업기간	2020년 10월 ~ 2021년 2월		
사업대상지(주소)	충주음악창작소(충주시 사직로 140)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참여 공간으로 예술을 통한 문화적 자긍심을 갖도록 유도 - 시민과 함께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하모니 작품으로 표현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 품 명 : 하모니 - 기획의도 : 민, 관이 하나가 되는 하모니(소통)를 의미 지휘자는 관의 리더십, 박자는 시민을 의미 ⇨ 화합을 의미 		



〈(사)한국미술협회 충주지부 실행계획수립을 위한 1차 회의 2020. 9. 2〉

• 프로젝트 2 - 봄봄봄 프로젝트

작가팀명	예술하다	대표자명	권연정
프로젝트명	봄봄봄		
사업기간	2020년 10월 ~ 2021년 2월		
사업대상지(주소)	충주시 지현동 행정복지센터 내(충주시 지현천변 1길 41)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작가와 주민이 함께 충주시 지현동에 활기를 불어 넣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사과나무이야길의 투어에 시작점으로 포토 존 역할 및 따뜻한 이미지로 외부 관광객 유입 - 오래된 골목의 정취와 함께 벽화 및 소품 그리고 스트리트 갤러리 등이 어우러진 지역의 아날로그적이고 레트로적인 이미지 창조 중 -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 예술, 관광 콘텐츠 적용과 운영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구도심 활성화 기능 확대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명 : 봄봄봄 - 의 미 : 바라봄, 먹어봄, 추억을 남겨봄. 충주시 세부적으로는 지현동만의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 메시지를 담아 작품을 디자인 및 설치 외부 관광객 유입 		



〈예술하다 실행계획수립을 위한 1차 회의 2020. 9. 2〉

• 프로젝트 3 - 빛으로 전하는 공공미술 '등대꽃'

작가팀명	스튜디오 군	대표자명	김광진
프로젝트명	빛으로 전하는 공공미술 '등대꽃'		
사업기간	2020년 10월 ~ 2021년 2월		
사업대상지(주소)	호암지 생태전시관 앞(충주시 상아배이길 84)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주의 최대 인공 저수지인 호암지 산책로에 조형물을 설치해 호암지를 찾는 시민들이 새로운 작품과 풍경을 향유 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 품 명 : 등대꽃 - 작품설명 : 동 파이프를 이용해 대나무의 형태를 만들고, 해가 지면 대나무 상단의 타공 된 부분으로 LED조명이 퍼져 나와 반딧불이가 대나무 근처를 맴돌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 생태 공원 위쪽으로 뿔뿔하게 자리 잡고 있는 비탈길에 빛을 내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공원의 조경이 풍성하게 보여 질 수 있도록 한다. 충주의 맑은 공기와 호암지의 아름다운 풍경과 어우러져 산책길의 특별한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스튜디오 군 실행계획수립을 위한 1차 회의 2020. 9. 2〉

• 프로젝트 4 - 조형예술과 함께하는 종댕이길

작가팀명	(사)민족미술인협회 충주지회	대표자명	김유미
프로젝트명	조형예술과 함께하는 종댕이길		
사업기간	2020년 10월 ~ 2021년 2월		
사업대상지(주소)	충주호 종댕이길 안내소 인근(충주시 종민동 산 84번지)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주민미협 회원 작가들의 공공미술 실행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지에 적합한 조형미술품 제작하여 시민들과 여행자들에게 시각예술 감상 기회 제공 함.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작가들에게 공공미술 일자리를 제공하여 창작의지를 조성하고자 함.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 품 명 : '휴식을 위하여', '나비의 유영', 'ㅋㅋㅋㅎㅎㅎ', '향기를품다' - 기획의도 : 일일 평균 900명의 충주시민과 트레킹 여행객이 이용하는 종댕이길 제2주차장에 4점의 창작 조형물을 제작 설치 함. 산과 호수를 감상할 수 있는 장소에서 추억을 남기고 싶은 이용객의 행동특성을 감안하여 포토존과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작품 컨셉을 설정 함. 		



《(사)민족미술인협회 충주지회 실행계획수립을 위한 1차 회의 2020. 9. 2》

- 당선팀 실행계획수립을 위한 2차 회의(2020. 9. 7 ~ 9. 8)



〈(사)한국미술협회 충주지부 2차 회의〉



〈예술하다 2차 회의〉



〈스튜디오 곤 2차 회의〉



〈(사)민족미술인협회 중주지회 2차 회의〉

- (사)한국미술협회 충주지부 장소변경회의(2020. 9. 16)



• 스튜디오 군 장소변경회의(2020. 9. 18)



-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1차 자문회의-설치예정장소 검토(2020. 10. 6)



〈(사)한국미술협회 충주지부 현장자문회의〉



〈스튜디오 군 현장자문회의〉



〈예술하다 현장자문회의〉



〈(사)민족미술인협회 총주지회 현장자문회의〉

- 중간점검을 위한 2차 자문회의-제작현장 점검(2020. 12. 30)



〈(사)한국미술협회 충주지부 중간점검〉



〈(사)한국미술협회 충주지부 중간점검〉



〈예술하다 중간점검〉



〈예술하다 중간점검〉



〈스튜디오 군 중간점검〉



〈스튜디오 군 중간점검〉



《(사)민족미술인협회 총주지회 중간점검》



《(사)민족미술인협회 총주지회 중간점검》

- 최종점검을 위한 3차 자문회의-설치작품 점검(2021. 2. 15)



〈(사)한국미술협회 충주지부 최종점검〉



〈예술하다 최종점검〉



〈스튜디오 곤 최종점검〉



〈(사)민족미술인협회 충주지회 최종점검〉

- 작품 제막식(2021. 2. 16) - 호암지 생태전시관 앞에 설치된 '등대꽃' 작품의 제막식으로 다른 여섯작품의 제작을 갈음했다.





6. 함께한 사람들

• 총괄감독

장백순(1968생)	충주시 상당구 단재로 316 101동 204호	010-5484-2958	jbsart0321@daum.net
------------	---------------------------	---------------	---------------------

• 프로젝트 1

(사)한국미술협회 충주지부(하모니/충주음악창작소)

직책	성명	참여부분	연락처	
			주 소	
대표	이종성 1958생	사업총괄	주 소	충주시 업정면 도지기 길 10
			휴대폰	010-7473-2356
			이메일	wonkwangart@hanmil.net
행정	어미숙 1967생	행정지원	주 소	충주시 금릉로17 102동904호
			휴대폰	010-8846-2189
			이메일	eyondang@naver.com
작가 1	김현숙 1974생	하모니	주 소	충주시 연수동 유원2차 5동 1804호
			휴대폰	010-9800-7435
			이메일	rabbit4507@naver.com
작가 2	김창곤 1966생	하모니	주 소	충주시 연원5길 26 도예공방필
			휴대폰	010-5491-5015
			이메일	changgonny@naver.com
보조 작가 1	김경애 1966생	하모니	주 소	충주시 금릉로 59-1
			휴대폰	010-3403-7095
			이메일	jisun1876@naver.com
보조 작가 2	강덕자 1953생	하모니	주 소	충주시 국원대로 166 임광@103-606
			휴대폰	010-3435-6131
			이메일	kangsister.hanmil.nat
보조 작가 3	임병한 1981생	하모니	주 소	경기도 이천시 대월로848 삼원@ 106-1004호
			휴대폰	010-2057-4530
			이메일	magleem@naver.com
보조 작가 4	권지영 1976생	하모니	주 소	경기도 이천시 대월로848 삼원@106-1004호
			휴대폰	010-2793-1423
			이메일	3016k@hanmail.net
보조 작가 5	변가영 1963생	하모니	주 소	충주시 금곡서1길 5 601-307
			휴대폰	010-2819-7125
			이메일	kayoung0327@hanmil.nat

• 프로젝트 2

예술하다(봄봄봄 프로젝트/지현동 행정복지센터)

직책	성명	참여부분	연락처	
대표	권연정 1981생	사업총괄	주 소	충주시 지현천변 1길 21
			휴대폰	010-2493-4633
			이메일	happy4633@hanmail.net
행정	전성해 1957생	행정지원	주 소	충주시 중원대로3379 럭키문화@ 110동 601호
			휴대폰	010-4444-2253
			이메일	jeonsh9658@naver.com
작가 1	정봉기 1967생	봄봄봄	주 소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관동길 74-1
			휴대폰	010-8898-3549
			이메일	
작가 2	윤은옥 1962생	봄봄봄	주 소	충북 충주시 연수서 1길 20, 105-402
			휴대폰	010-3080-5741
			이메일	ooart@hanmail.net
작가 3	장명남 1962생	봄봄봄	주 소	충주시 연수동 930, 세원상가 209호 쌤아트
			휴대폰	010-3080-5741
			이메일	
작가 4	김동교 1993생	봄봄봄	주 소	충주시 중앙탑면 원양4길51, 시티자이@
			휴대폰	010-9793-0962
			이메일	rlaaj21@naver.com
작가 5	전정환 1993생	봄봄봄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607-6번지 201호
			휴대폰	010-5589-5049
			이메일	ghghri5758@naver.com
작가 6	장경원 1991생	봄봄봄	주 소	청주시 청원구 울중로 7번길 77, 903동 1704호
			휴대폰	010-4252-0565
			이메일	ve-1991@naver.com
작가 7	전상언 1983생	봄봄봄	주 소	충북 충주시 연수동 금영빌딩 4층
			휴대폰	010-6528-1000
			이메일	skysangeon@naver.com

• 프로젝트 3

스튜디오 곤(빛으로 전하는 공공미술/호암지)

직책	성명	참여부분	연락처	
			주 소	연락처
대표	김광진 1969生	사업총괄	주 소	충주시 동수9길 30
			휴대폰	010-9144-9887
			이메일	kwangzin@hanmail.net
행정	이수영 1969生	행정지원	주 소	충주시 예성로401, 411-303
			휴대폰	010-8383-2802
			이메일	muffiny2840@daum.net
작가 1	권덕영 1989生	등대 꽃	주 소	충북 충주시 연수동산로26, 101-1304
			휴대폰	010-9930-7113
			이메일	kwggong23@gmail.com
작가 2	김미화 1989生	프로젝트 아카이빙	주 소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 4길 68, 201호
			휴대폰	010-3117-8936
			이메일	mhkim036@naver.com
작가 3	박현순 1958生	등대 꽃	주 소	충주시 연수로1길 12, 102-1103
			휴대폰	010-9419-4619
			이메일	ihk1255@hanmail.net
작가 4	복기형 1967生	등대 꽃	주 소	충주시 중앙탑 입석2길 7-1
			휴대폰	010-9242-8780
			이메일	bokkh@hanmail.net
작가 5	손병돈 1967生	프로젝트 아카이빙	주 소	경기도 용인시 만현로 133번길 33, 905동 1302호
			휴대폰	010-5461-9593
			이메일	dohnsohn@hanmail.net
작가 6	유영복 1968生	등대 꽃	주 소	충주시 남산4길 75
			휴대폰	010-5488-3413
			이메일	bud3412@hanmail.net
작가 7	이경선 1971生	등대 꽃	주 소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21길 42-3, 501
			휴대폰	010-8062-3425
			이메일	twocatswith@gmail.com

• 프로젝트 4

(사)민족미술인협회 충주지회(조형예술과 함께하는 중뎡이길/중뎡이길 안내소)

직책	성명	참여부분	연락처	
			주 소	연락처
대표	김유미 1974生	사업총괄	주 소	충주시 중앙탑면 청금로 112-10
			휴대폰	010-4510-3496
			이메일	dbal6884@hanmail.net
작가 1	최미량 1985生	행정지원	주 소	충주시 봉현로 366, 푸르지오2차 105-903
			휴대폰	010-4444-3709
			이메일	farui@naver.com
작가 2	신선희 1971生	휴식을 위하여 / 나비의 유영 ㅋㅋㅋㅎㅎㅎ / 향기를 품다	주 소	충주시 동량면 자동리 239-1
			휴대폰	010-2433-5914
			이메일	sunpower01@hanmail.net
작가 3	김영범 1969生	휴식을 위하여 / 나비의 유영 ㅋㅋㅋㅎㅎㅎ / 향기를 품다	주 소	충주시 동량면 호반로 1238-7
			휴대폰	010-2227-1969
			이메일	69-1011@hanmail.net
작가 4	임헌명 1970生	휴식을 위하여 / 나비의 유영 ㅋㅋㅋㅎㅎㅎ / 향기를 품다	주 소	세종시 조치원읍 산막길17, 104동 1301호
			휴대폰	010-9669-1933
			이메일	art1011@hanmail.net
작가 5	권길순 1969生	나비의 유영 ㅋㅋㅋㅎㅎㅎ	주 소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조동1길 37-1
			휴대폰	010-5034-5941
			이메일	mokjangap@naver.com
작가 6	이호훈 1966生	휴식을 위하여 / 나비의 유영 ㅋㅋㅋㅎㅎㅎ / 향기를 품다	주 소	충주시 연수서1길 20, 101동 105호(삼성2차)
			휴대폰	010-4419-1094
			이메일	cjart28@hanmail.net
작가 7	원종근 1979生	휴식을 위하여 나비의 유영 ㅋㅋㅋㅎㅎㅎ	주 소	충주시 대소원면 요도천변길 309
			휴대폰	010-9622-2273
			이메일	gerlsang@gmail.com
작가 8	김진숙 1972生	휴식을 위하여 / 나비의 유영 ㅋㅋㅋㅎㅎㅎ / 향기를 품다	주 소	충주시 만리산9길42, 스카이뷰 101-501
			휴대폰	010-2066-9513
			이메일	wlstnr7926@naver.com

충주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Chungju
Public Art Project



공간 정체성에 숨을 불어넣는 공공미술

하모니

시민의 예술적 리더십으로 협력과 화합을 통해 하모니를 이루고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여 나날이 발전하는 충주의 모습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표현하였다.

(사)한국미술협회
충주지부

하모니

시행 작가팀 : (사)한국미술협회 충주지부

설 치 장 소 : 문화동 충주음악창작소(사직로 140)

작 품 크 기 : 280×150×360cm

충주음악창작소는

옛 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하여 2017년에 개관한 충주음악창작소는 충주의 대중음악 발전과 음악인들의 창작 활동을 돕기 위해 녹음스튜디오를 비롯해 소공연장, 개인 및 밴드연습실, 세미나실, 게스트룸 등을 갖췄다.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창작공간이자 감상공간이다.

세부사업 개요

- 사업유형 : 작품 설치형
- 제작기간 : 2020년 10월 ~ 2021년 2월
- 참여인원 : 9명
- 참여자명 : 이종성(대표), 김현숙, 김창곤, 김경애, 강덕자, 임병한, 권지영, 변가영, 어미숙(행정)
- 설치장소 : 충주음악창작소
- 작 품 수 : 1점
- 재 료 : 스테인레스스틸, 브론즈, 도자타일, 화강석
- 작품크기 : 280×150×360cm
- 기획의도 : 시민의 참여 공간으로 예술을 통한 문화적 자긍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예술인, 시민, 기관 등 모든 공동체가 어우러져 함께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하모니'라는 소통의 개념과 의미에 담아 작품으로 표현했다.

프로젝트 전



프로젝트 후



(사)한국미술협회 충주지부장 이종성

2020 충주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품 [하모니]를 제작 하면서...

[공공미술프로젝트 하모니]를 시작하며 주민들과 작가들 간의 문화향유를 생각하니 내심 기뻐했다. 작가들의 철학이 담긴 작품은 지역민과의 균형을 생각하게 했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생각하게 했다. 하모니 팀을 결성하고 작업을 진행하면서 팀원들의 단합이나 작품의 완성도, 주최단체와의 원활한 소통은 대표자로서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 이었다. 그러나 걱정과는 다르게 팀원들의 단합이 '하모니'스럽게 잘 이루어졌다.

각기 다른 분야의 작가들이 만났지만 화합하고 절충하고 소통하는 모습에서 이상적인 예술인의 모습을 보여 주었고, 진심으로 즐겁게 작업하는 모습 속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즐거운 협업에 작품의 완성도나 충주중원문화재단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참여작가회의 - 1〉



〈참여작가회의 - 2〉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업 시작 시점이나 행정적인 부분에서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며, 겨울철이다 보니 날씨에 따라 작업 일정이 변동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참여 작가들 모두 작품 '하모니'의 의미처럼 조화롭게 서로 배려하는 모습 속에서 대표로서의 뿌듯함은 선물이었다.

충주중원문화재단 관계자님들과 참여하신 감독님을 비롯한 작가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 더불어 코로나19를 잘 견뎌낸 여러분들 가정마다 늘 건강한 웃음으로 함께하는 세상이 되길 기원하며,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생활 속 공공미술'이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



〈사업대상지 위치〉



〈조감도〉



〈사업대상지 현장〉

참여작가 김현숙

코로나로 힘들었던 지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충주시에서 주최하고 충주중원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모전이 있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경제적 이유도 출품 계기가 되었지만, 무엇보다 조소를 전공하고 조형물 제작을 주업으로 하는 나에게는 큰 기회였다. 한국미술협회 충주지부장님과 여러 작가님을 구성하여 팀을 만들고 지역 시장조사와 참신한 아이디어로 공모에 당선되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각기 다른 전공으로 뭉친 ‘하모니’팀 작가들 간의 화합과 협력으로 멋진 조형물이 탄생하였고 뜻깊은 추억으로 남았다. 조형물 ‘하모니’는 4/4박자의 지휘 표 위에 지휘자가 하모니를 지휘하는 모습이다. 이 모습 속에는 주민과 예술과의 하모니, 작가와 작품의 하모니, 공간과 감성의 하모니가 공존한다.

작품 ‘하모니’가 문화예술의 공간인 ‘충주음악창작소’에 설치된 점은 조형물과 설치 장소가 음악적 요소로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잘 어울린다는 평을 받았다. 다소 아쉬운 부분은 조형물의 크기와 형상의 다채로움이 제작비의 현실에 축소되었던 부분과 체계적이지 못하고 복잡했던 시스템이다. 앞으로 공공미술이 체계적으로 더 활성화되어 도심 속에 꽃피는 공공미술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즐거움이 샘 솟는 세상이 되길 기원해 본다.



〈터파기 및 콘크리트 공사〉

| 충주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



〈터파기 공사〉

〈콘크리트 타설공사〉



참여작가 김창곤

『도시 속의 미술(Art in City)』이라는 공공미술에 참여한 올해는 나에게 있어 행복이고 행운이다. “예술 작품이란 사적 영역일 수 있으나 예술 작품의 향유는 공적 영역이어야 한다.”는 개념을 뿌리로 하는 공공미술의 지향성을 살려서 작은 마을부터 도시에서 예술가의 작품 세계를 선보일 수 있다는 매력에 빠져 우리 팀 ‘하모니’의 예술적 감각을 뽐낼 수 있었다. 이번 공공미술을 통해 ‘내’가 아니라 ‘우리’가 참여하여 우리 도시의 하늘을 캔버스로 끼를 발산하였다. 협업의 결과물 ‘하모니’는 층주의 높은 곳에 설치되어 마치 전망대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듯한 지휘자의 눈과 손끝에서 풍경을 그려볼 수 있는 작품이란 점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어 좋다. 코로나19, 한파, 시간과 비용 등 제작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5개월의 제작과정을 거쳐 협업으로 희망을 제작한 작품은 주변의 환경과 잘 어우러져 공공미술로서 역할을 단단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원형제작 심봉매기〉



이제 공공미술 작업이 끝나고 높은 곳에 설치한 협업의 결과물 '하모니'를 바라보니 마음이 한없이 흡족하다. 함께 한 작가들의 입이 저절로 초승달이 되었다. 마음을 모으면 세상을 희망으로 꽃피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예술가로 많은 사람에게 나의 예술 활동이 따뜻함과 여유, 그리고 행복한 휴식을 줄 수 있는 작품 창작을 할 수 있기를 다짐한다.

● 조형물 브론즈 제작



〈원형제작 석고뜨기〉



〈원형제작 F.R.P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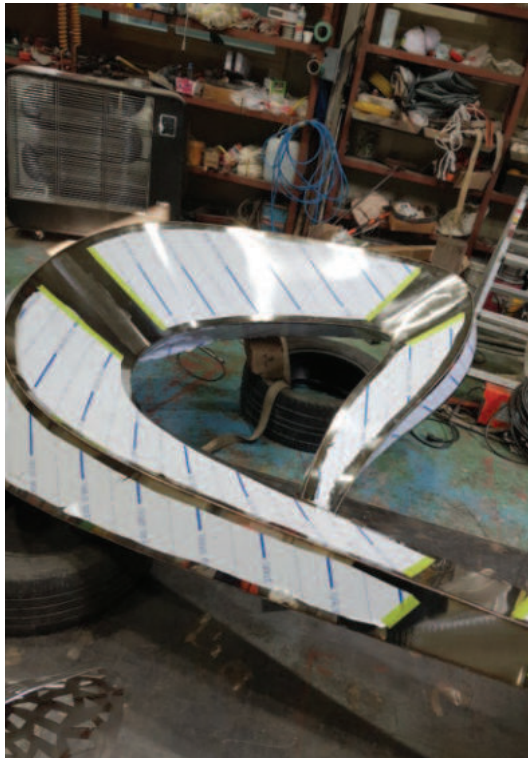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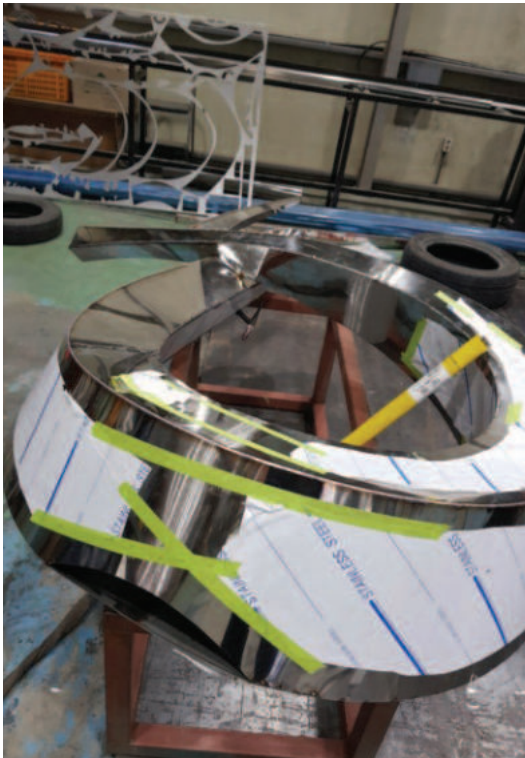


〈주물제작〉





● 조형물 스테인레스 제작





● 스테인레스, 브론즈 합체





● 도판제작(채색 및 도판 다듬기)







● 작품 설치







충주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Chungju
Public Art Project



공유감성을 이끌어내는 공공미술

봄봄봄

바라봄, 먹어봄, 추억을 남겨봄.
사과의 고장 총주, 그 시초가 지현동 과수원길 이랍니다.
사과꽃 만발하던 총주의 옛 동네 지현동.
이젠 그 사과향이 고향, 친구, 골목길, 가족의 내음으로
아련히 피어납니다.
그 추억의 향과 맛을 담아 작품에 표현 하였습니다.

예술하다

봄봄봄

시행 작가팀 : 예술하다

설 치 장 소 : 지현동행정복지센터

작 품 크 기 : 800×300×300cm

지현동은

교육기관, 의료기관이 없는 전형적인 소규모의 주거형 지역인데 충주시의 타 주거지 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이동과 노령화가 다시 새로운 문화의 유입이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70, 80년대에 형성된 오래된 골목과 주거지 형태 그대로 낙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아날로그'라는 컨셉으로 옛 정취를 느낄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중이다.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 역시 낙후되어가는 공간에 문화예술로 숨을 불어넣자는 취지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여 착수하였다.

세부사업 개요

- 사업유형 : 작품 설치형
- 제작기간 : 2020년 10월 ~ 2021년 2월
- 참여인원 : 9명
- 참여자명 : 권연정(대표), 정봉기, 윤은옥, 장명남, 김동교, 전정환, 장경원, 전상언, 전성해(행정)
- 설치장소 : 충주시 지현동행정복지센터 내
- 작 품 수 : 1점
- 재 료 : 잔디, 화산석
- 작품크기 : 800×300×300cm
- 기획의도 : 지현동은 충주의 사과재배 기원지로서, 지역의 역사성을 살려 지난 2013년부터 원도심에서 연결되는 보도교 방향을 축으로 '사과나무이야기길'을 특화, 골목길 환경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관광 콘텐츠 적용과 운영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구도심 활성화 기능 확대하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프로젝트 전



프로젝트 후



청년작가 예술하다 대표 권연정

참여계기

지역 문화예술인 일자리 창출과 일반 평면작업을 하는 작가들은 경험해 볼 수 없는 조형물 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인거 같았으며 멋지게 이야기 하자면 충주시 조형물 문화 수요 충족을 위해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팀원구성

공모사업을 준비하면서 작은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현재 청년작가들의 전공 비중이 디자인에 몰려 있어 실질적인 조형물 제작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술하다 청년작가들이 자리 잡고 있는 충주시 지현동에 어울리는 작품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지현동에 갓 자리 잡은 청년작가들의 생각만으로는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내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청년작가들의 부족한 부분인 노련함과 지역의 특색을 그려 내고 계시는 전문작가 분들과 함께하면 의미가 있을 거 같다는 의견을 모아 지역 전문 작가 분들을 찾아뵙고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다행히 청년작가들의 의도를 존중해 기특하게 여겨주셨고 흔쾌히 한 팀이 되어주셨다. 그리고 팀 구성 중 미술을 전공했지만 기회가 없어 창작활동을 못하고 있는 장애인 제자도 함께여서 더 완벽한 팀이 구성되어 기분 좋은 출발이 되었다.



〈참여작가 설치장소 회의〉

주민 참여 및 작품 기획

지현동 주민 분들 또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다. 주민큐레이터로 활동해 주실 분들도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하셔서 의견을 주셨다. 그 의견을 반영하여 지현동의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의 시각화 및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이미지 적용 할 수 있는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 메시지를 담아 바라보고, 먹어보고, 추억을 남겨 봄이라는 '봄봄봄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참여작가 회의〉

어려운점

확정된 공모사업의 많은 행정부분이 바뀌는 일들이 반복적이며 추가되는 업무들이 사실상 어렵고 아쉬운 부분이다. 다행히 다른 타 도시에 비해 충주시와 중원문화재단 담당자가 빠르게 안내하고 정리해주어 쉽게 일들을 진행 할 수 있었다. 또 하나 조형물을 만드는 작업을 평면 작가 분들이 배우면서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입체 작가분들의 작업시간에 비해 안전을 위해서라도 많은 시간을 내어 작품을 만들어야 했다. 작업을 세분화 하여 진행하였지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 입체작가분들의 작업량의 비중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청년작가들을 끝까지 웃으면서 배려해주셨고 청년작가들도 전문작가분들을 의지하면서 작업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느낀점

청년작가들은 경험 부족하고 다른 작업과정에서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청년작가의 고민과 노력이 무시당하는 현실 속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전문 작가 분들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다.

앞으로 계획

지역전문 작가분들과 청년작가들이 함께하는 기획을 계획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 예술, 관광 콘텐츠 적용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연계하여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다양한 사업 만들어 가려고 한다.



〈설치장소 현장답사〉



〈주민마음-응원메세지〉



〈설치장소 현장답사〉

참여작가 윤은옥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문화예술인을 위해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소식을 듣고 취지는 이해가 됐지만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고민하다가 미술단체들의 참여 이야기가 속속 나오면서 사업내용을 인지하고 팀을 이루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시와 강의 활동도 못하는 작가들에게는 희소식이었지만 한정된 인원으로 참여 작가들의 갈등도 있었다. 기획, 행정, 전문작가, 청년작가, 장애인작가로 팀을 구성하면서 전공이 다른 여러 분야의 작가들이 함께하게 된 것과 특히 청년작가들이 중심이 되고 장애인작가도 함께 하게 된 것이 우리 팀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며 새로운 도전이었다. 공공미술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미술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인해 활기가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는 조형물과 평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작업이 진행되어 작가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충주시는 설치조형물로만 분야를 국한하여 다양한 교류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면서 나만의 색깔로 내 작업만 하던 개성이 강한 작가들이 모여 서로를 알아가며 화합과 소통으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 공모사업의 큰 성과인 것 같다. 여러 작가들이 함께 모여 화합하는 문화예술 작업에 큰 의의를 두고 새로운 형태의 작업의 지원이 계속 되었으면 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어려운 미술인들을 위한 일자리창출이었지만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예술가들의 역할이 많아져서 충주시 문화관광사업으로도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사업 지원이 계속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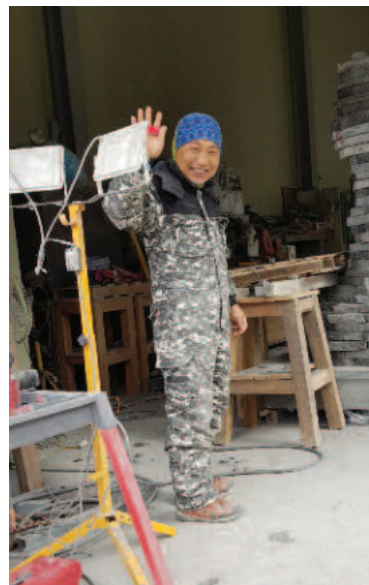
<지현동 주민회의>

참여작가 전정환

청년작가 전정환입니다. 충주에서 나고 자란 디자이너로서 출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은 고향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로컬크리에이터로의 성장에 뜻 깊은 경험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경제성과 실용성이 우선시되는 디자인을 전공으로 하면서 소홀해진 창작성과 독창성을 이번 순수 조형작품을 통해 다시금 상기하고 계발할 수 있었습니다.

한 손에 쥐어질 만 한 스케일의 제품디자인 혹은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단계에서의 건축설계만을 진행한 경험이 창작자로서의 작업인데 반해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실제로 설치될 3미터 가량의 큰 스케일을 구현해야하는 작업이었기에 매우 긴장되고 또 그만큼 설레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초기 스케치의 느낌을 그대로 옮겨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오히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실제의 느낌을 토대로 유려하게 수정해나가는 작업에서 더욱 만족스럽고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제품, 건축에서 그치지 않고 조형작품 또한 경험할 수 있어 한 명의 창작자로서 예술활동의 다양한 분야를 이해하고 제시하는 역량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배움, 커리어를 바탕으로 앞으로 꾸준한 작품활동을 통해 지역을, 국가를 대표하는 디자이너이자 예술가로 성장할 것을 기대해봅니다.



〈예술하다 작가들의 기록〉

● 작가들의 기록









〈예술하다 작가들의 기록〉

참여작가 장명남

충주의 청년작가로 구성된 예술하디의 청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뽐뽐뽐 프로젝트' 만의 매력이다. 예술 전공자들의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못해 예술을 전공하는 친구들의 수가 적어지면서 청년작가를 만나다니는 것은 힘든 일이 되었다.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예술인들도 많아 졌다. 그래서 이번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청년작가, 전문작가들에게 희소식이였다.

전공은 다르지만 각자의 역할을 찾아서 해내고 내어놓은 결과물에 행복하다. 충주 시민들도 문화 예술로 삶의 질이 높아 질 수 있도록 작품이 많이 설치되었으면 하는 소망도 가져본다. 그래서 예술의 도시로 한층 높아진 충주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작품 설치공간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작품과 어울리는 장소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설치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 중간점검



● 작품제작 과정











● 기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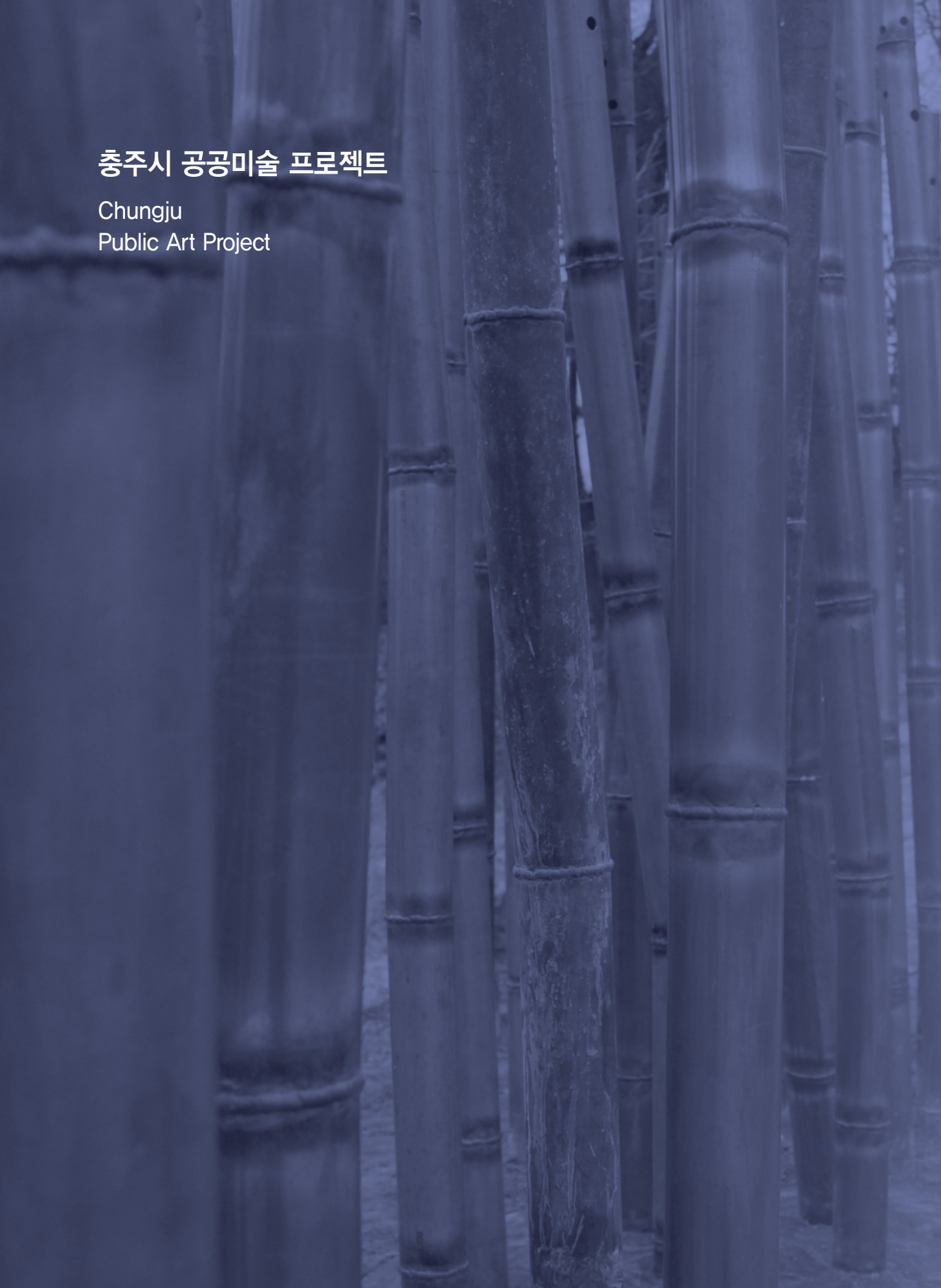






충주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Chungju
Public Art Project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공공미술

등대꽃

생태공원으로 특화된 호암지의 아름다운 풍경과 어우러진 빛.
어두운 산책로를 안전하게 밝히고 호암지를 이용하는
충주시민들에게 특별한 감성을 선사하도록 기획되어
대나무와 반딧불이를 컨셉으로
자연 그 자체의 조명조형물로 호암지에 빛을 밝히다.

스튜디오 굿

등대꽃

시행 작가팀 : 스튜디오 굳

설 치 장 소 : 호암지 생태전시관 인근

작 품 크 기 : 620×200×360cm

호암지는

1932년 완공된 인공저수지로 농업용수의 확보를 위해 개발 되었으나 이후 충주 시민의 건전한 여가 생활의 장소를 제공하고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호암생태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생태공원이라는 특징을 살려 자연친화적 조형요소를 핵심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 하였다.

세부사업 개요

- 사업유형 : 작품 설치형
- 제작기간 : 2020년 10월 ~ 2021년 2월
- 참여인원 : 9명
- 참여자명 : 김광진(대표), 복기형, 유영복, 손병돈, 김미화, 이경선, 권덕영, 박현숙, 이수영(행정)
- 설치장소 : 호암지 생태전시관 인근
- 작 품 수 : 1점
- 재 료 : 동파이프, 동판, LED 조명
- 작품크기 : 620×200×360cm
- 기획의도 : 호암지는 내부에 넓게 분포된 산책로에 비해 공원내 문화공간, 조형적 공간이 없어 아쉬운 곳이다. 아름다운 호암지의 자연경관을 부각 시켜 주고 주변과 잘 어우러지며, 시민들의 호암지 이용에도 편의를 주는 조형물을 기획하였다.

프로젝트 전



프로젝트 후



스튜디오 굿 대표 김광진

2020공공미술 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 지난 몇 년간 스튜디오 굿의 대표로 나서면서 그간 고생하던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스튜디오 굿은 충주의 레지던시 사업단으로서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과 커뮤니티 교육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년 최선을 다해 쏟아온 그간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 전국적으로 공모된 2020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마무리 하면서 정말 많이 고생해 주신 팀원작가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함을 전합니다.

처음 프로젝트 공모의사를 전달받고 그간 진행된 전시와 같은 것인가 하고 안일한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이제껏 진행해 오던 여타 미술 사업과는 다른점이 많아 우려도 함께 했었다. 선정되었다는 소식 앞에 기쁘기 보다는 생소함에 두렵기도 했다. 다만 작품과 작가선생님들의 역량을 믿기에 함께하기로 하고 좋아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개인일정을 급하게 조절해야 하는 통에 시작의 일부를 보고만 받았고 계약서와 협약사인을 하면서야 팀원의 대표로 서게 되었다.



스튜디오 굿 회의)



스튜디오 근무 회의

작품의 전반적인 계획은 대표작가가 진행하게 되었고 팀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현장설계부분을 조언하였다. 매주 주간회의가 진행 되었고, 다소 불협화음이 일기도 했지만 모두에게 처음인 프로젝트임을 상기 하며 진행 하였다. 작품제작은 대표작가의 작업실에서 진행되어 코로나19의 위험적 분위기와 기타 안전상황을 체크하며 진행되었다. 동관을 배달받던 날이 생각난다. 생산품인 동관을 대나무모양으로 작업하여 '등대꽃'으로 바꾼다고 하니 작가도 아닌 나에게도 가슴 벅찬 환희가 일었다.

문화예술 뉴딜정책 이라는 생소함 앞에 지역 내에서 묵묵히 작업을 해가는 작가선생님들의 의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작가들의 예술에 대한 자긍심이 조형물로 세워져 빛을 발하는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처음 시도 된다는 건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와 일맥 상통한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생소함에 도전장을 던지며 힘을 모아 달려들던 작가님들의 의지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한 발짝 더욱 커뮤니티와 다가서는 그들의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 작가들의 불굴의 의지와 커뮤니티의 조화 속에 생성되는 문화예술 조형물이 빛으로 전하는 공공미술의 참미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문화예술 사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참여작가 복기형

2020공공미술프로젝트를 통하여 작품을 실현시킬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작업 현장은 예측불가능한 일들의 연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 팀으로써 작업의 목적지까지 가야하는, 모험심과 평정심을 실어 능수능란하게 진행해야하는 프로 작가여야 한다. 또한 누군가의 어릴 적 추억의 빛을 되찾아 가야하는 예술창작이어야 했다. 내게 젊음이 한창일 때 스승님과 동료의 작업진행을 도와주었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나의 작품설계안을 스튜디오 굳 팀원들과 함께 진행을 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었다. 지인과의 작업을 진행하며 시도했던 알곤용접을 다시 사용할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로웠다.

처음의도와는 다르게 대나무에서 동관으로 바뀌지면서 알곤용접으로 작업설계가 이뤄졌다. 조각과를 졸업하고 설치미술작업을 진행해오면서 여러 번 용접작업을 해 보았지만, 알곤가스를 이용해 동관 용접을 하게 되어 적잖이 두근두근 거렸다. 동관을 받아들이고 3일간 용접 감을 되찾으며 시간가는 줄 몰랐다. 불꽃이 비산되지는 않지만 직광이 많아서 맨눈으로 쳐다보면 화상을 입을 위험성이 있는지라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다른 팀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신경을 써야했다. 동관(모재)과 은 함유량 제로인 동 용접봉(용가재)을 불활성가스인 알곤가스를 이용해 일체화 시키는 용접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왈가왈부하는 용접재이다. 알곤가스 사장님도, 용접기 사장님도 궁금해 하셨다. 심지어 용접을 함께할 동료작가도 걱정을 하셨다. 예술가에게 부정은 창작의 거부와 같다.



〈사업대상지 현장답사〉



〈사업대상지 현장답사〉

큰 의문과 함께 시작된 작품제작은 주변을 따라다니며 귀찮게 하던 선생님들과 이의를 함께하며 가속을 붙여 나갔다. 작업진행상 작업을 촬영한 담당선생님이 고생을 함께한 셈이다. 우리팀의 프로젝트 명이 “빛으로전하는 공공미술—등대꽃” 인 것 만큼 용접시 발산되는 빛이 아름답다며 찬사를 보내던 작가는 눈이 아롱거려 힘들다고 하며 멀찍이 돌아서 다녔다. 작품제작은 팀으로 이행되다보니 모두가 프로여야 하고 우리는 프로였다.

동관의 용접이 모두 끝나고 팀원모두 좋아해 주었고 흥이 났었다. LED전구까지 장착되고 현장으로 설치되기 위하여 남은 일정을 구상하느라 많은 토의를 했다. 현장경험이 있는 작가들 간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하기 위해 주말도 일을 진행했다. 동장군의 해방을 피하기 위해 오후작업으로 일정을 잡고 코로나19의 여파를 피하기 위해 모임인원을 제한하며 참 숨 가쁘게 일정을 진행 시켰다. 동관을 자르고, 다듬고, 용접으로 다시이어서 대나무 모습으로 변화되어 공공의 생활공간으로 설치되어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연상하게 되어 공공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제시하는 조형물. 작가가 공동체에게 전해줄 공공미술의 실현의미가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

참여작가 김미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분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문체부에서 전국 단위로 기획되어 지역의 문화 활력을 높이는, 침체된 지역 작가들에게 새로운 동기부여를 해주는 반가운 프로젝트였다. 시작은 그랬다. 그러나 급조된 프로젝트였던 만큼 진행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주 많이, 그것도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이렇게 저렇게 잘 마무리해 가고 있다. 9명의 작가가 한 팀이 되어 진행해야 하는 본 프로젝트 구성을 기획하며 가장 많은 시간 고민했던 것은, '작가들의 균등한 작업량' 이었다. 각자 포지션을 나눴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그러나 작품의 계획이 여러 번에 걸쳐 수정되며 작가 참여도가 재구성되었고, 이 과정에서 복기형 작가님과 유영복 작가님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행정을 담당하시는 이수영 선생님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연락하며 휴대폰을 놓지 못하는 힘든 나날이 지나갔고, 현장 작업이 시작되며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사업대상지 현장답사〉

프로젝트의 약 70~80%를 진행한 지금 우리는 현장 검증을 포함해 총 3번의 자문 회의에 참여하였다. 첫 현장 회의와 자문회의를 거치면서 사업대상지가 바뀌며 처음 계획안과는 전혀 다른 시안을 다시 계획해야 했고 재료도 일반 대나무에서 동관으로 용접을 하여 대나무로 구현하기로 변경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다양한 작가 9명이 모여 작품을 진행하는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모여서 작업 좀 해볼 만하면 코로나가 불거졌고, 서로를 위한 배려와 작업실에 가고 싶은 책임감이 오묘하게 뒤섞여 이상한 부채감에 시달리며 불편한 마음이 프로젝트 내내 계속되었다. 현장에서 끝까지 묵묵하게 파스 투혼을 불태워주신 복기형 작가님, 언제나 즐거운 맘으로 참여해 주시는 유영복 작가님, 눈 수술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놓지 않으신 아카이빙 담당 손병돈 선생님, 함께 첫 프로젝트 진행할 수 있어 기뻐던 권덕영, 박현순, 이경선 선생님, 현장 공사 관련해서 정리해 주신 관장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장소를 빌려주신 성마루 미술관 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작가들을 챙기느라 고생하신 이수영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작가님들 덕분에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우리의 작은 '공공'도 나름의 규율과 서로에 대한 배려로 비로소 완성 완성된 것 같다.



〈사업대상지 현장답사-팀원들과 함께〉

● 재료구매 및 작업실 탐사





● 동관, 동판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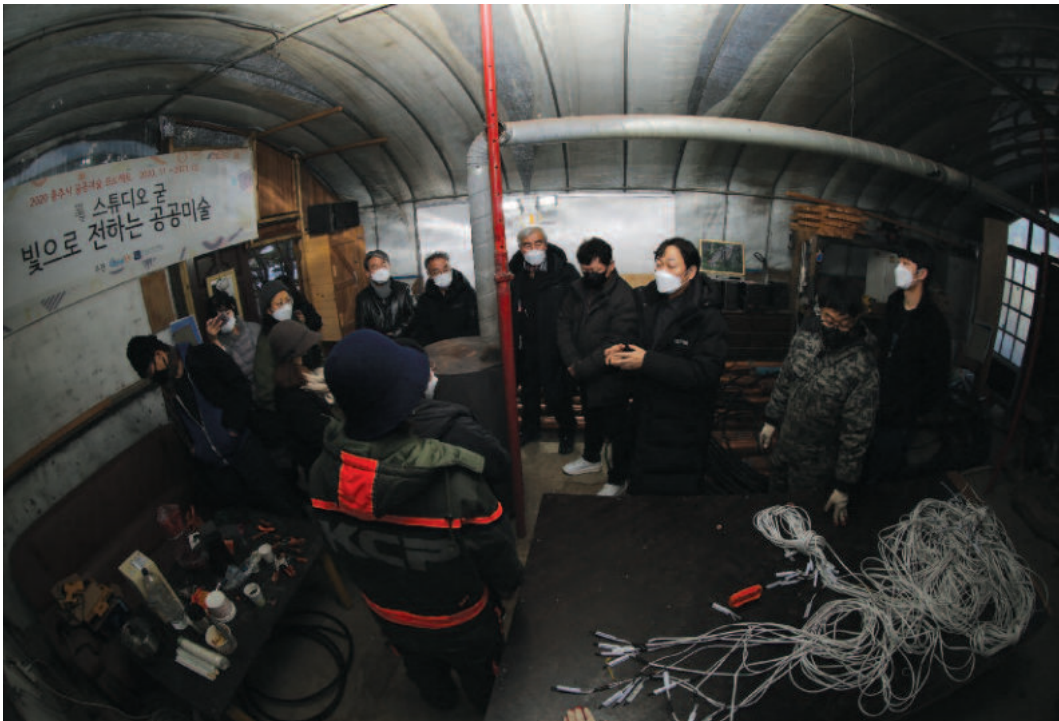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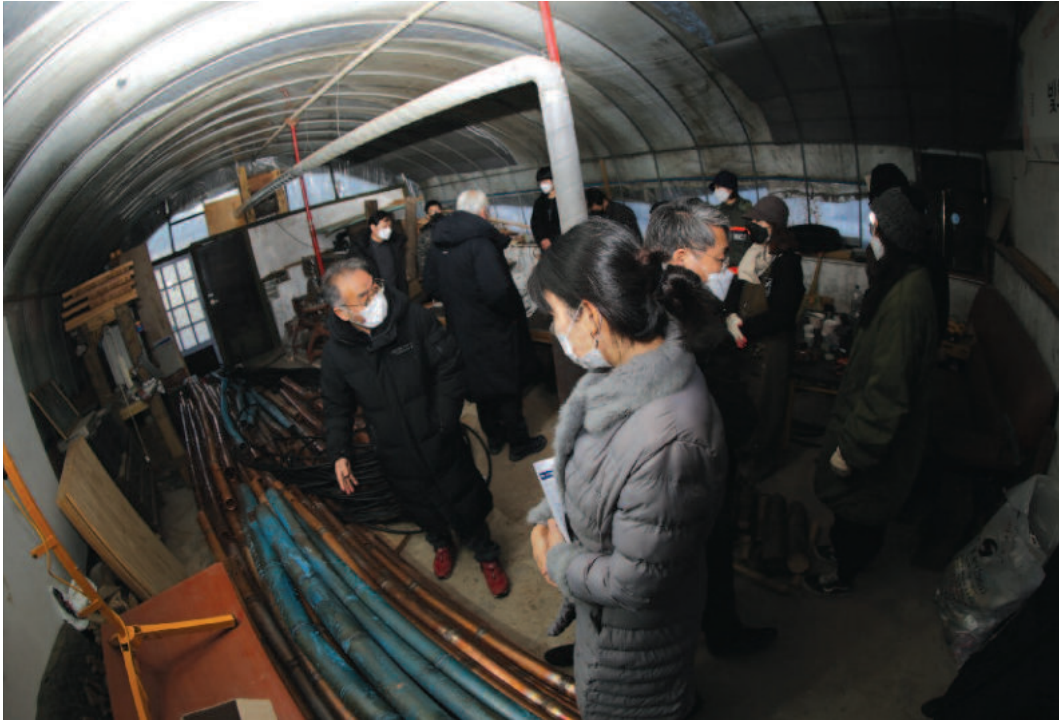








● 중간점검



● 전기, 부식 작업



● 작품 설치







● 참여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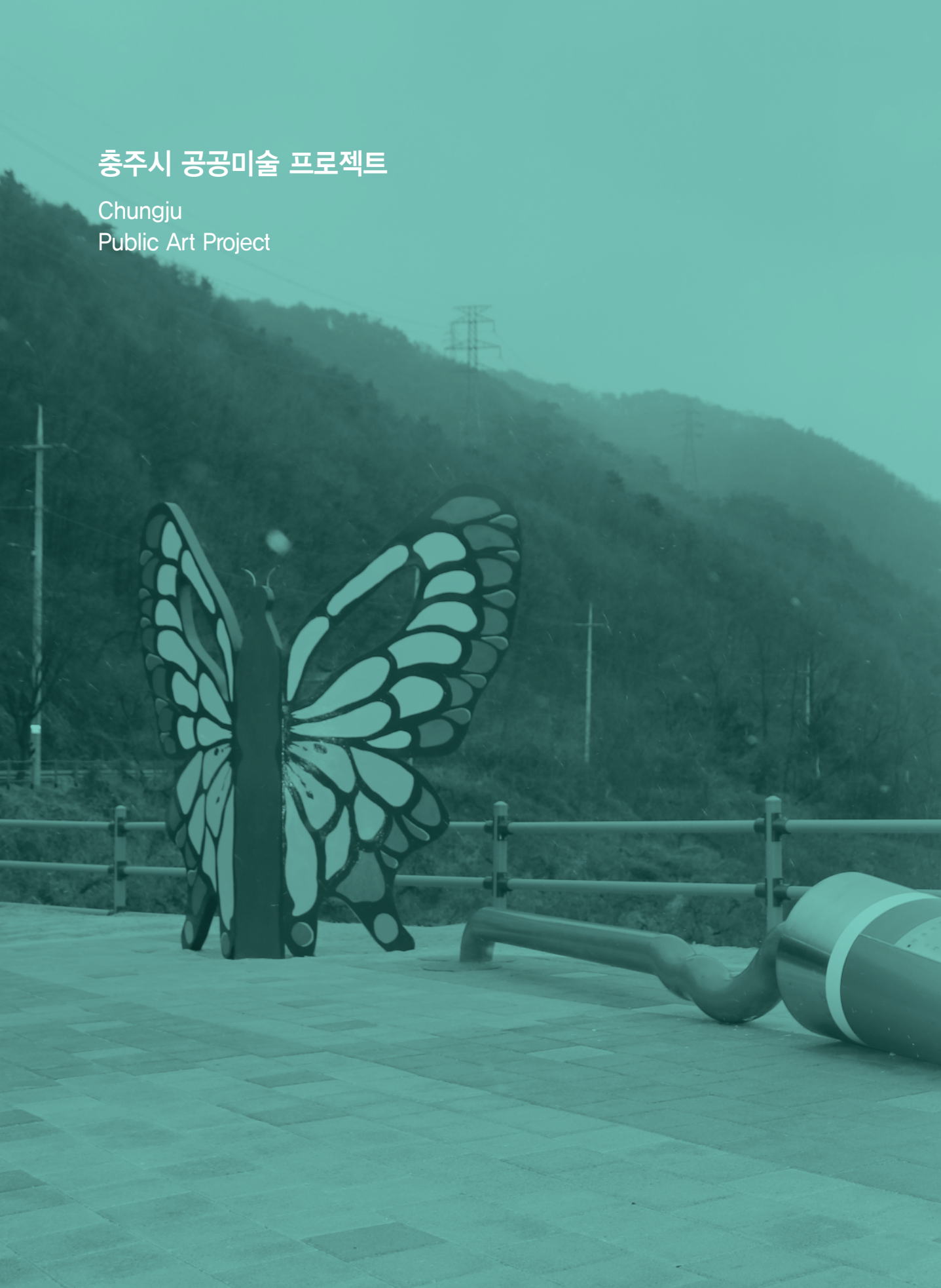






충주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Chungju
Public Art Project



오락과 휴식을 제공하는 공공미술

조형예술과 함께하는

종댕이길

풍경을 본뜬 산등성이에 걸린 초승달에 미소와 웃음을 담다.

향기를 담은 물감으로 그려낸 나비가 날아올라
총주호가 펼쳐진 하늘 아래를 유영한다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종댕이길 한켠,

늘 그 자리에 있을 하나의 의자가 반복된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안과 휴식을 주기를 소망하다.

(사)민족미술인협회
총주지회

조형예술과 함께하는 종댕이길

시행 작가팀 : (사)민족미술인협회 충주지회

설치장소 : 충주호 종댕이길 안내소

작품크기 : ㅋㅋㅋㅎㅎㅎ(500×100×200cm)

향기를 품다(565×80×54cm)

나비의 유영(230×70×240cm)

휴식을위하여(68×48×240cm)

종댕이길은

한국에서 가장 큰 호수 충주호를 너른 품으로 안아주는 오솔길로 호수의 시원함과 숲의 안온함을 만날 수 있는 길이다. 이용 편리를 위해 조성된 주차장과 안내소 부지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 역시 아름다워 경치 구경의 목적만으로도 주차장을 찾는 관람객이 많아 관광명소로서 발전을 기대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세부사업 개요

- 사업유형 : 작품 설치형
- 제작기간 : 2020년 10월 ~ 2021년 2월
- 참여인원 : 9명
- 참여자명 : 김유미(대표), 김영범, 임헌명, 신선희, 이호훈, 원종근, 권길순, 김진숙, 최미량(행정)
- 설치장소 : 충주호 종댕이길 안내소 인근
- 작품 수 : 4점
- 재 료 : 스테인레스, 우레탄 메탈릭 도장, 외장타일, ALC블럭
- 작품크기 : 500×100×200cm, 565×80×54cm, 230×70×240cm, 68×48×240cm
- 기획의도 : 기획의도 : 종댕이길은 일일 평균 900명의 충주시민과 트레킹 여행객이 이용 하고있다. 방문자들을 위한 안내소에서의 경치 역시 절경이다. 산과 호수를 감상할 수 있는 장소에서 추억을 남기고 싶은 욕구를 해소하고 더욱 방문객수를 증대 시키기 위해 포토존과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작품 컨셉을 설정했다.

프로젝트 전



프로젝트 후



(사)민족미술인협회 충주지회 대표 김유미

충주민미협 참여작가들은 충주시 공공미술프로젝트 공모를 준비하면서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협업에 충신했다. 장소 선정에는 산림복지과와 교현안림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후 장소의 특성과 어우러지는 작품 시안을 2배수 준비하고 종민동 주민대표님들 의견을 반영하여 공모에 선정 되었다.

공모 기간이 짧아 준비과정에 미흡함이 있었다. 공모선정 이후에 작품의 질과 보존성을 높이기 위한 자재 변경 요청이 있었다. 참여작가들의 작품의도와 작품성, 재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제작 설치하는데 의견 조율과정이 필요했다. 기상조건과 맞물려 보강작업의 방법과 계획이 순조롭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팀의 역할을 다하고자 초심으로 돌아가 해결방안을 도출하게 되었다. 다시 한번 기본에 충실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유난히 추웠던 기상 조건에도 불구하고 참여작가들이 함께 만들어낸 조형작품이 종댕이길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추억과 기록으로 남겨지는 포토존 역할과 장소로 기억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부담스런 작품이 아닌 재미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 달라시던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작품으로 남길 희망합니다. 추운 칼바람과 영하의 한파 속에 함께 작업을 한 참여작가님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작품완성 가상이미지-작품명 'ㅋㅋㅋㅎㅎㅎ'〉



〈작품완성 가상이미지-작품명 '휴식을 위하여'〉

참여작가 이호훈

열정이 추억을 만든다...

좋은 과정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다. 공공미술프로젝트 소식이 들려올 때 가슴이 설렘 시작했다. 예술은 대중과 소통할 때 존재 이유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대상지 8곳을 찾아가며 공공미술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장소인지 검토하면서 시작했다. 종댕이길 제2주차장을 최종대상지를 선정했다. 계명산과 금봉산 사이의 마즈막재에 위치하며 사시사철 트레킹 방문객과 시민들이 찾는 장소로 계명산과 심향산, 충주호를 바라보는 경관이 좋다. 장소성과 작품 컨셉을 설정하면서 참여작가들의 협업이 빛나기 시작했다.

'추억의 공간', '거리 가구'를 작품 컨셉으로 주차장 부지 내에 4개의 작품을 설치하기로 했다. 포토존과 편의시설을 공공미술 개념에 도입한 디자인 9개를 만들어 냈다. 종민동 통장님들과 주민들에게 2배수의 디자인을 제공하고 의견에 따라 디자인을 선택했다. 엄동설한(嚴冬雪寒)에 기초공사에서부터 채색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작가들의 열정이 가득했다. 프로젝트 취지를 이해하고 부지사용에 동의해 주신 산림복지과와 주민간담회를 주선하고 천막제공 등 행정지원을 베풀어 주신 교현안림동 행정복지센터에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대상지 선정부터 컨셉 설정, 디자인 시안, 작품 제작, 시공 설치, 행정지원의 전 과정에 협업한 참여작가들의 열정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작업과정을 지켜보면서 관심을 갖고 기다려주신 시민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작품완성 가상이미지-작품명 '나비의 유영', '항기를 품다'〉

참여작가 권길순

예술인 일자리 제공 및 주민 문화향유 증진을 목적의 일환으로 시행된 공공미술프로젝트 취지에 맞는 기획으로 저희 충주민미협이 선정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용이한 공공장소로 종댁이 제2주차장으로 선택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직접 선정한 설치조형물 4점을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공예술이라는 목적에 맞는 체험적인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충주의 자연경관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작품으로 포토존을 통한 체험, 공간에 머무르며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충주시민은 물론 외부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충주시 하나의 랜드마크로 인식되길 바랍니다. 보고 감상하는 시각적 유희만이 아닌 시민이 직접 앉아보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시민과 하나되는 작품으로 즐길 수 있고 추억에 남길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는 공공장소로 자리매김하길 희망합니다.

주로 작가 개인의 작품으로 또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기획전 중심으로 작업을 해 왔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작품의 기획부터 디자인, 제작방법등 모든 작가들이 계획하에 이루어졌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작가들의 적극 참여로 완성되었습니다. 평소 신뢰와 유대감이 좋았지만 이번 협업을 통해 충주민미협 회원간에 참여의식과 성실함이 한층 더 돋보인 프로젝트로 개인적으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전문작가들이니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작품 발표의 기회가 그 이전보다 적었던 것 같습니다. 충주민미협내에서는 2021년 정기기획전을 시작으로 회원들과 함께 어우러져질 수 있는 새로운 전시를 기획중이며 또 작가들의 각자 개인의 작품들을 발표를 위해 꾸준히 작업하고 발표할 기회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 기초작업



● 작품 제작과정









● 타일작업





● 스테인레스 작품 제작과정



● 작품설치





〈휴식을 위하여 바닥 몰탈작업〉



〈ㅋㅋㅋㅎㅎㅎ 프라이머 도색작업〉



● 작품 도색작업





● 사진촬영









충주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Chungju
Public Art
Project

2020. 8. – 2021. 2.

발행처 (재)충주중원문화재단
발행인 백인욱
발행일 2021. 2. 25.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충주시
주관 (재)충주중원문화재단
협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충주시 환경수자원과
충주시 푸른도시과
충주시 지현동행정복지센터
총괄감독 장백순
기획 안진상
프로젝트 매니저 김금식
디자인 디자인팩토리

이 책에 수록된 도판 및 글의 저작권은 (재)충주중원문화재단과 참여 작가팀에게 있습니다.
도판과 텍스트 사용시 저작권자의 사용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충주중원문화재단, 2021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우)27388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로 128, 충주문화회관 2층
TEL. 043)851-7981